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홍보

청년 농에게는 희망

고령은퇴 농에게는 노후보장



옥천역전에서 고령농업인 대상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제공

[옥천]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는 19일 옥천역전 및 버스터미널 등 고령 농업인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홍보를 시행했다.

이날 농업인 뿐만아니라 지역민들도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최근 농업현장에는 고령농 증가와 청년 농 유입부족으로 인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희망 하는 고령 농의 농지를 청년 농에게 이양하고 청년 농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손을 잡고 만든 제도가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이다.

더욱이 충청도내 총 11개 시군 가운데 옥천 및 영동군은 고령화율이 30%대 기록하며 충청도내 고령화율 22% 훌쩍 넘어서는 수치이다.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천영동지사는 다수지역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연중집중홍보 통해 고령농업인 농지이양 및 은퇴를 유도 할 예정이다.

김상우 옥천영동지사장은 "안정된 노후가 있는 농어촌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지역주민들과 공사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세-만 84세 이하) 소유농지를 공사 및 청년 농 등에게 매도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 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제공

육종천 기자(skybell1910@daejonilbo.com)